

나주 농촌 마을버스 환승 불편 없앤다

동강·공산·왕곡·반남 등 면지역
영산포·터미널까지 연장 운행
18일부터 운행 방식 순차 개편

나주시가 농촌 면 지역 주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버스 운행 방식을 환승 없이 시내권 터미널까지 직통으로 연결하는 노선 조정을 추진한다.

마을버스 환승 체계는 나주시가 지난해 대중교통 노선 전면 개편 정책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행정구역상 나주의 서쪽 끝에 소재한 동강면 등 일부 면 지역 교통약자들은 터미널이 있는 나주 시내까지 이동하는데 2시간 넘게 걸리면 서 민원이 폭증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시장은 지난 7일 동강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하고 '대중교통 환승 불편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교통복지 증진과 이용 편의를 최우선으로 마을버스를 환승 없이 시내권으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버스 노선을 연장 조정하는 것이다.

앞서 나주시는 인근 대도시인 광주와 바로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 버스 노선과 시내권과 읍·면을 순환하는 환승 방식의 지선(마을버스) 버스 체계를 골자로 버스 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223개에 달하는 기존 버스 노선의 중복 운행과 이용객 운송 수입 감소, 인건비·연료비 상승에 따른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보조금 예산의 효율



윤병태 (맨 왼쪽) 나주시장이 지난 7일 동강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대중교통 노선개편으로 도입된 마을버스 환승체계 불편 해소 대책을 발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나주시 제공>

적인 집행 방안 마련이 개편 이유였다.

버스 노선 개편으로 급행버스를 비롯해 빛가람 동 콜버스 도입, 운행 횟수 증가 등은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됐지만 마을버스 전면 도입에 따른 환승 불편 문제는 해결 과제로 진단했다.

이에 나주시는 오는 18일부터 동강·공산·왕곡·반남면 권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11·15번 노선을 영산포와 나주터미널까지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

배차시간과 노선 조정 등 세부 운행계획 검토가 완료되면 다시 문평·세지·봉황면 권역 등도 4월 중 노선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면 지역 거점 버스 승강장의 승객 대기실

환경도 대폭 개선하고 화장실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면 지역을 순환하던 마을버스가 시내권으로 연장 운행하면 그동안 환승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70세 이상 가구에 지원했던 100원 택시 이용권 지급은 중단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테스트(TF) 팀을 구성해 대중교통 이용객 불편 사항 해소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교통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담양군 어린이프로방스 노후 시설 개선 정비

전남도 '관광환경 개선 사업' 선정

담양군이 관광객의 쾌적한 관람 편의 제공을 위해 노후화된 어린이프로방스 시설을 정비한다.

담양군은 어린이프로방스를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등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전남도가 공모한 '2024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을 신청,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담양 어린이프로방스는 메타세쿼이아랜드에 넓은 잔디밭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공룡 조형물, 다양한 놀이기구와 생태환경을 구성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체험하기 좋은 곳이다. 특히 3대

명품 숲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호남기후변화 체험관, 개구리생태공원, 예고교육관과 연결돼 있어 주말이면 자녀를 동반한 관광객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메타세쿼이아랜드는 자연경관에 다양한 즐길거리를 더해 광주근교 가족 나들이 장소로 사랑 받고 있으며, 관광객의 요구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관광 콘텐츠로 연간 51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소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앞으로도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김성 장흥군수가 최근 열린 장평면 여의마을 마을회관 준공식에서 축하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 장평면 여의마을 마을회관 준공

장흥군 장평면 여의마을에 마을회관이 최근 준공했다.

장흥군은 지난 8일 김성 장흥군수와 왕윤재 장흥군의회 의장,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마을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열었다.

장평면 여의마을회관은 대지면적 905㎡, 건축면적 90.8㎡에 1층 규모로 철골 구조 신축건물이다. 총사업비는 2억6000만원이 투입됐다.

마을 주민들과 출향 향우들은 4600만원의 재원

을 마련해 회관 준공에 힘을 보탰다.

여의마을 주민들은 마을의 유일한 복지 여가 시설인 마을회관을 주민 화합의 공간으로 꾸릴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마을회관이 준공하기까지 큰 노력을 기울인 마을 주민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신축한 마을회관이 소중한 사랑방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 청자축제 기간 강진사랑상품권 1억6300만원 쓰였다

20만원 이하 소비 20% 돌려줘
38% 축제장·62% 읍내서 사용

열흘간 열린 강진 청자축제에서 1억6300만원의 강진사랑상품권 소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군은 축제 기간 진행된 '강진사랑상품권 나눔' 행사에서 5775건의 참여를 통해 지역화폐 1억 6300만원이 배부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행사는 축제 기간 당일 소비한 카드 영수증 금액에 따라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소비액의 20%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1인당 1회 참여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이용 영수증은 제외됐다.

축제 기간 행사 참여자들의 소비액은 모두 9억 6000만원으로, 강진군은 이 가운데 1억6300만원을 지역화폐로 돌려줬다.

나눠진 강진사랑상품권의 38%인 6200만원은 청자축제장에서 쓰였다. 나머지 62%인 1억1000만원은 강진읍 시장에서 쓰였다.

상품권이 축제장보다 두 배가량 강진읍내 상권에서 쓰인 것이다. 참가자들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강진군민 52%,



강진청자축제축제장의 방문객들이 강진사랑상품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 제외 전라권 22%, 광주 1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영수증 소비처 1위는 단순 구매(식품·물품 등) 28%였으며, 2위는 식당 24%, 3위는 도자기 구매 23%가 차지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청자축제가 성공한 데에는 상품권 행사 효과가 컸다"며 "관광객뿐 아니라 강진군 상인을 비롯한 군민 전체에 혜택을 고루 나누고, 축제장과 강진읍에도 많은 소비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장성군 청소년 문화·여가 돕는 '바우처' 지급

9~13세 7만원·14~18세 10만원

장성군이 청소년의 문화·여가 교육을 돕는 '청소년 수당' (꿈키움 바우처) 지원을 최근 시작했다.

'청소년 수당 지원사업'은 장성군에 주소를 둔 9~18세 청소년에게 문화·여가 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를 제공한다.

9~13세는 7만원, 14~18세는 1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꿈키움 바우처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충전된 카드는 문구점, 안경원, 서점, 독서실, 교복 구입, 예체능 분야 학원 등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으며, 입시 관련 학원에선 결제할 수 없다.

올해 신규 지원 대상인 2015년 출생 아동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즉시 카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대상 청소년은 앞선 2월1일에 포인트가 자동 충전됐다.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20일까지며 날짜가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

카드 잔액과 사용 내역, 이용 가능한 가맹점 정보는 바우처 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에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검색하거나, 카드 뒷면 QR(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비추면 된다.

장성군은 지난해 처음 선별인 청소년 수당 사업을 통해 총 2847명의 청소년에게 2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민선 8기 공약인 청소년 수당이 꿈나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이호동 김박소영 그림

가abriels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